

지방문학의 개념 범주와 연구 방향*

박중렬**

<차 례>

1. 근대의 형성과 지방문학
2. 지방문학의 개념 범주
3. 지방문학 연구의 영역과 방향

1. 근대의 형성과 지방문학

근대국가는 국민을 정치적으로 통합하고 국가의 발전 기체에 필요한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상상의 공동체'를 조성한다. 근대국가에 어울리는 고급문화와 정전(canon)이 창출되며, 문화는 표준화됨으로써 일종의 제도적 규율¹⁾로 작동한다. 표준과 규율은 필연적으로 위계와 서열을 형성한다. 고급문화와 정전, 국민문화나 민족문화란 역사적 연속선상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근대사회가 시작되면서 제도의 형식으로 고착된 것이다. 이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2-073-AS1038)

** 전남대학교

1) 표준어란 근대국가의 언문일치 사상이 반영된 언어적 규율이라 할 수 있다.

로써 국민문화나 민족문화에 특권적 지위가 부여²⁾된다.

예컨대 근대 이전 문어체의 표준이자 중심은 한문이었다. 한글은 여항의 속어로서 주변부로 밀려났다. 근대 이후 서구문화가 중심이 되고 국민문화는 주변화되었다. 자본주의를 선도했던 서구의 과학기술과 기계문명의 선진성에 비해 ‘미달’의 상태에 놓인 비서구는 계몽의 대상으로 간주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처럼 근대의 문화적 기제는 일종의 ‘인식틀’(épistémè)을 낳는다. 한 시대를 살아가는 지배적인 의식을 규율하는 인식론적 배치(disposition épistémologique)³⁾가 형성되면서 이제 국민문화와 지방문화, 또는 중앙문화와 지방문화간⁴⁾에 위계가 싹트게⁵⁾되었다. 문학 또한 예외는 아니다. 근대의 형성 과정에서 전도와 도착이 일반화된 것이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지방문화에 대한 관심이 최근 높아지긴 했지만 이는 기실 전체적 동일성과 차별이라는 근대의 논리가 독립적 개별성과 차이라는 탈근대의 인식틀로 변화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차이를 인식하는 힘이란 비교와 서열과 종속이 아니라 각각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서로가 문화적 주체로 거듭나는 대화적 관계를 복원하는 것을 뜻한다. 지방문학의 개념 범주를 살피고 연구방법론을 검토하는 것 또한 이러한 전도와 도착을 복원하지는 문화운동의 갈래라 할 수 있겠다.

이 글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지방문학에 대한 몇 가지 개념적 범주를 정리함으로써 지방문학의 의의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나아가 지방문학 논의의 단서로 삼고자 하는 시론이라 할 수 있다. 소략하나마 지방

2) 하루오 시라네·스즈키 토미 엮음, 『창조된 고전』, 소명출판사, 2002, 21쪽.

3) 미셸 푸코, 이광래 옮김, 『말과 사물』, 민음사, 1986, 19~21쪽.

4) 국민문화와 지방문화가 개념적 대칭성을 지닌 것은 아니다. 지방문화에 대응하는 범주는 중앙문화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근대 이후 국민적 통합에 목적을 둔 중앙 권력이 형성되고, 중앙 권력이 관철되는 과정에서 일종의 표준화된 문화 기제가 요구된다. 이때 형성된 표준과 규율이 곧 국민문화이고 이는 서울 중심의 중앙문화와 동일시된다.

5) 물론 국민문화와 지방문화, 중앙문화와 지방문화간의 위계는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양자 모두 각 지역 단위의 생활의 필요에 자족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학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역 단위의 구분 문제, 지방문학의 범주와 연구 전망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2. 지방문학의 개념 범주

지방문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역시 각 지방 고유의 문학 유산을 발굴하여 문화 자산으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문학 연구의 단위를 재설정함으로써 연구의 폭을 넓히고 있는데,⁶⁾ 대학 단위로 지방학을 정립하려는 시도도 적잖고⁷⁾ 문학의 세부 전공별로 지방문학 연구 성과 또한 축적되고 있다.

지방문학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지방문학의 일반론은 아직까지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다. 각 지방마다 문화적 독자성이 있기 마련이어서 이를 포괄적으로 일반화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방문학에 대한 원론적인 접근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지방문학이 중요하고 지방문학에 대한 연구가 가치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지방문학의 담론이 왜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지방문학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으며 그 특성은 어떠한지, 범주와 연구방법론은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는지 연구의 방향과 영역이 세부적으로 논의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때문에 단지 지리적 단위를 기준으로 권역을 구분한다든지 생태주의나 속지주의를 기준으로 작가나 작품을 분류하는데 그침으로써 지방문학 연구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지방문학의 개념 규정에서부터 작가와 텍스트의 선정에 이

6) 지방문학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 계기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1995년 문화관광부에서 마련했던 ‘지역문학의 해’ 행사이다. 각 지방마다 지방문학의 역사를 돌아보는 행사를 마련하고 지방문학 작품집까지 발간하기도 했다. 그 다음으로 2002년부터 학술진흥재단에 의해 시행된 기초학문의 지역 연구 지원 활동을 들 수 있다.

7) 2004년에 기획된 전남대학교의 호남학 정립 어젠다(agenda)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르기까지 앞선 연구의 성과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문학 일반의 하위 장르적 성격을 일차적으로 살핀 다음, 지방문학 연구의 영역과 앞으로의 방향에 이르기까지 논의를 확장해 보고자 한다.

(1) 지방, 지역, 향토의 구분과 지방문학

지방문학은 일반적으로 지역문학이나 향토문학으로도 불린다. 지방, 지역, 향토의 의미는 같지만 관점의 차이에 따라 달리 쓰인다. 조동일⁸⁾은 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방문학 연구를 언급하면서 영국에서 지역(provincial)은 멸시하는 뜻이 있으나 지방(regional)은 더 넓은 뜻의 중립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지역’을 가리키는 편협한 자세⁹⁾를 버리고 ‘지방’의 의미를 발견하는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김대현¹⁰⁾은 ‘지방’이란 표현이 서울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쓰이는 말이어서 변방의 문학이라는 인식이 깃들여 있다고 했다. 지역문학이라고 해야 각각의 지역이 중심적인 관점을 회복할 수 있다고도 했다. 고석규¹¹⁾는 향토사, 지역사, 지방사의 용어를 비교하면서 ‘향토사’는 연구 주체와 연구 대상이 태생적으로 연결된 것을 전제로 하고, ‘지역사’는 제국주의의 지역 연구와의 연결을 끊기 어려우므로 ‘지방사’의 말을 쓴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지역이라는 용어가 지방이라는 용어에 비해 객관적인 학술

8) 조동일, 『지방문학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51쪽.

9) 조동일의 이러한 견해에는 ‘지방이라는 용어 안에 상대적인 소외감이나 박탈감이 시사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지역이라는 중립적 용어를 사용하자는 지금까지의 주장이야말로 오히려 지방문학을 비하하는 시각’이라는 비판이 내재되어 있다. 또한 지방이라는 용어를 가감 없이 사용함으로써 지방문학이 갖는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방향으로 발상을 전환하자는 의미도 있다.

10) 김대현, 「지역문학 연구에 대한 몇 가지 문제」, 『동방한문학』 21, 동방한문학회, 2001, 178쪽. 서울과 지방, 중앙과 지방이라는 이원론적 위계는 근대의 형성 과정에서 서열화된 인식론적 배치틀이라고 할 수 있다.

11) 고석규, 「지방사 연구의 새로운 모색」, 제1회 역사문화학회 학술대회.(조동일, 위의 책, 86쪽 재인용)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지역학, 지역 개발, 지역 문화 등과 같은 용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은 지리적, 생태적 생활 조건을 반영한 중립적인 개념어이다. 문화 주체의 정체성이나 생활 공동체의 정신적 특질을 반영하는 측면에서는 지방이라는 용어가 더 가치론적이다. 무엇보다 지방문학이라고 할 때야 그 지방이 지향하는 가치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고, 중앙의 선민적 문화 편견에 대항하는 지방공동체의 정신적 전체상이라는 관점이 담론화될 수 있다. 지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서울과 지방, 중앙과 지방이라는 서열화된 문화적 위계를 암묵적으로 수용하되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꺼려하는 정신적 이중성을 극복하기 힘들 것이다. 지방문학이라는 용어에 함의된 위계적 가치를 탈근대의 관점에서 전복하고 지방문학의 본원적 가치를 구명해내기 위해서라도 지방문학이라는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지역문학보다 지방문학이라는 용어와 개념을 사용할 때 무엇보다 각 지방의 정신적, 언어적 자산으로서 지방문학의 의의가 부각된다. 예컨대 해남지역이라고 했을 때 지리적 개념이 우세하기 때문에 단순히 해남 지역에서 생산되고 유통된 문학으로 규정되어 다른 지방과 차별화된 특질이 부각되지 않는다. 곡성지역, 여수지역 등과 대별되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가치중립적인 성격만 나타날 따름이다. 그러나 해남지방이라고 했을 때 해남의 자연, 생태와 더불어 역사와 문화, 정신적 특질까지 파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학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2) 지역 단위 구분의 문제

지방문학의 개념을 규정하기에 앞서 지방문학의 범주를 살펴야 하고 이보다 먼저 지역 단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지역 단위란 지방문학을 이해하기 위한 접근 방식을 뜻한다.

먼저 행정·정치적 단위로 지방문학을 나눌 수 있다. 예컨대 전남문학,

광주문학, 나주문학 등과 같이 도·시·군 단위로 구분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행정적인 인위성이 가미되어 있어 앞서 언급한 자연적, 생태적 구분조차 불분명하며 다소 편의적인 구분 방식이다.

다음으로 문화적 층위에서 지방문학을 구분할 수 있다. 문화란 정치·경제적 생활양식의 정신적 반영이자 공동의 역사적 과정을 내포하고 있다. 문화의 관점에 서면 하위 층이랄 수 있는 문학의 특질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문화는 시공성에 있어서 생성, 소멸, 전파의 역동성을 지니므로 그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 흔히 문화 권역이 중첩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¹²⁾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을수록 문화적 특질이 선명한 것은 그 반례다.¹³⁾ 생활권에 따른 구분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고흥문학이라고 했을 때 고흥의 문화와 범주, 양식의 면에서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지역 단위를 구분의 기준으로 설정함으로써 지방문학의 지역적 갈래를 나누기란 쉽지 않다. 특히 문학이 과거와의 연계 속에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이상적 열망’이 투영되어 있는 양식이므로 비록 지방문학의 갈래에 포함되면서도 끊임없이 더 큰 공동체의 이상과 상상적 이데올로기를 형상화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므로 문학의 권역 구분이란 근본적으로 무의미할지도 모른다. 이런 점에서 지방문학의 범주와 갈래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개방적이면서도 형성적인 관점에서 지역 단위를 고려해야 한다. 역사적인 면에서 지역간의 경계는 가변적이다. 한 지역에서 형성된 문화와 가치는 여러 이해관계와 습속이 충돌하면서 중층적으로 변화하며, 지역끼리 습합되고 융화된다. 다른 한편으로 상위 단위 안에 포괄되면서 문화적

12) 예컨대 나주의 경우 현재 광주광역시의 행정권역과 지리적,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 때문에 특별히 나주문학으로 딱히 구분할 수 있는 문화적 경계가 불분명하다.

13) 제주도나 진도가 다른 지방에 비해 고유한 문화를 형성하여 왔다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경계가 사라지고 통합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한 지역을 고정된 실체로 본다면 지방문학의 전체상을 온전히 구현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방문학에 내재된 통합과 분열, 습합과 이탈의 과정을 역동적인 측면을¹⁴⁾ 동시에 살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치론적이고 목적론적 관점에서 권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지리적 자연성, 생활양식, 역사적 사건 등은 지방의 정신적 구심점을 형성하기 마련이고 문학적 소재로 재생산된다. 예를 들어 시단이나 시사의 형성, 누정문학, 무등산권¹⁵⁾이나 영산강권 문학 등과 같은 주제적 범주가 여기에 해당한다.

(3) 작가의 문제

지방문학 작가의 범주에 대해서는 김영화¹⁶⁾의 견해를 빌어 일반론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이에 기반할 때 지방문학의 작가란 (가)그 지역에서 태어나 지역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 지역 문화나 풍토를 몸에 익히고 공통의 기질이나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서 작품을 창작한 사람¹⁷⁾ (나)그 지역에서 태어나 유소년시절을 보내고 성년 이후 외지에 나가 살면서 문학 활동을 통해 그 지역을 형상화한 사람¹⁸⁾ (다)성년 이후에 그 지역에 정착해서

14) 지역 단위를 중심으로 지방문학의 특질을 구명하는 것은 자칫 그 지방의 정신적 지평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 예컨대 5·18정신이 광주문학의 지배적 특질인양 간주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따라서 광주문학이라고 할 경우 광주의 역사적 전통, 문화적 습속, 자연적 특질, 주변 지역과의 연관성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논의되어야 한다.

15) 앞서 언급한 김대현의 연구는 지방문학의 범주와 연구 대상을 크게 확장하여 살폈다는 점에서 선구적이다.

16) 김영화, 「현대문학과 제주문학」, 『탐라문화』 제15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편, 1995, 257~258쪽.

17) 장흥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 한승원의 경우가 그러하다.

18) 작가 송기숙의 경우 장흥에서 태어나 주로 광주지역에서 활동하였으며, 민족문학의 정체를 구현하는데 작품활동을 하였지만 전라도의 구술문화와 언어행식을 작품의 내적

지역의 생활 양식에 기반하여 작품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점에서 김영화의 견해는 속지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연주의를 작가 분류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지연주의에 기초해서 작가를 가늠할 경우 출타인과 도래인을 포함하여 작가를 분류할 수 있다. 이를테면 성인이 되어서 출타한 경우와 유소년기에 들어와서 성인이 된 경우, 또 청년기에 들어와서 삶을 개척하고 한 세대인 30년을 넘게 살고 있는 경우가 포함될 수 있을 것¹⁹⁾이다. 이처럼 지연이라는 지리적 공간과 그 경험을 넘어 지역문화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요소나 동기가 작품 속에 형상화되고 해당 지역민의 공동체적 정서에 부합하게 될 때 지역의 작가로 간주한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지방문학의 작가군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근대 이전의 작가와 이후의 작가를 구분해야 하는 난점이 있다. 근대 이전의 경우 대부분의 작품은 한문으로 쓰였다. 근대 이전 동아시아 공동문어로 정착된 한문²⁰⁾은 일상의 민족어문으로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화문명권의 정서를 표준화된 형상성으로 간주했기에 지방문학적 특성이 구체화되지 못하였다. 지방의 풍물과 승경, 풍속 등만이 소재의 측면에서 반영되었을 뿐 지방의 정체성(identity)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근대 이전 문학의 경우 출신 지역만으로 지방작가를 한정해야 할 것이다.

(4) 텍스트의 확정 문제

지방문학의 텍스트는 크게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나눌 수 있다. 1차

형식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전라도 작가라 지칭할 수 있다.

19) 양영길, 「지역문학사 서술방법론-제주문학사를 중심으로」, 『영주어문』 3, 영주어문연구회, 2001, 177쪽.

20) 임형택, 「한민족의 문자생활과 20세기 국한문체」, 『한국문학사의 논리와 체계』, 창작과비평사, 2002, 448쪽.

자료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지역 구분과 작가 범주에 기준한 텍스트이다. 문제는 2차 자료이다. 2차 자료는 지역문학적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 그 지역 작가의 작품이거나 외지인이지만 해당 지역을 형상화한 작품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지방문학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지방문학의 갈래를 좀더 세분화하여 텍스트의 성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언어, 정서, 이야기, 소재 등의 층위를 구별하여 작품을 구분하되²¹⁾ 이를 개별적 요소를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연구방법론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층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범주화할 수 있다.

- (가) 언어 : 해당 지역의 방언이 지배적인 작품은 지방문학의 범주로 포함시켜야 한다. 예컨대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방언 등의 범주를 들 수 있다.
- (나) 정서 : 정서의 문제를 한 마디로 규정하기 어렵다. 언어와 이야기, 소재와 같은 여타의 범주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정서는 작품의 질료가 통합적으로 구성되면서 비로소 드러나기 때문이다.
- (다) 소재와 이야기 : 해당 지역에서 구전되는 설화 전통이나 서사구조가 주제화(motivation)될 경우 지방문학에 포함할 수 있다.

독자 또한 텍스트를 확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독자란 지역 공동체 삶을 총체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그들에 의해 공동체가 성장하고 분화하고 통합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공동체의 정서가 표출되고 텍스트가 재생산된다. 독자의 정서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독자에 의해 재생산되지 못하는 문학은 지방문학으로서 의의가 반감될 것이다. 예를 들면 지방문학의 범주 안에서 한문학은 일반 고전문학에 비해 적극적으로 유통되지 못하고 있다. 해석과 소통의 이질성 때문이다. 현대의 독자가 향유하고 싶어도 언어적

21) 이 경우 자칫 소재주의에 함몰된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계해야 한다.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문학의 경우 미학적 연구뿐만 아니라 지방문학으로서의 지역적 전통성과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독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다. 독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문집의 종이나 작가의 수가 그들의 문화적 욕구와 정신적 자긍심을 고무시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3. 지방문학 연구의 영역과 방향

지방문학 연구의 영역은 앞서 논의한 지방문학의 개념 범주와 무관하지 않지만 학문 일반의 역사적, 범주적 영역 분류 방식에 따를 때 다음과 같이 나누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물론 연구 방향이나 목적, 주제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분류되고 확장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통시적 연구	공시적 연구
미시적 연구	(가)	(나)
거시적 연구	(다)	(라)

(가) 영역은 미시적+통시적 연구로서 이른바 미시사(microstoria)이다. 한 세기를 상회하면 일반적으로 거시사 영역에 포괄되므로 미시사는 100년 이내의 지방문학을 연구하되 매우 작은 소재 중심의 ‘촘촘한 관계망’을 구축하는데 적당한 연구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근대 지방문학에 나타난 성, 근대 호남문학과 음식, 20세기 한문학의 율격, 일제하 목포지역 시사(詩社), 18세기 영남 지역 규방가사와 고부 관계, 근대 계몽기 국한문체의 양상 등과 같은 연구가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미시적+공시적 연구로서 주로 가치론적, 미적 특질을 구명하는 연구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지방문학의 대중문학적 성격, 호남한문학에 나타난 실학사상, 제주문학의 해양성, 영·호남 시조문학의 초장 연구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다)는 거시적+통시적 연구로서 역사적 체계를 구명하여 정립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한 세기 이상의 사적 영역을 다룰 뿐만 아니라 매우 추상적인 가치의 문제를 구명해야 하므로 미시적+공시적 연구나 미시적+통시적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예컨대 남도 무가의 변천, 호남문학의 사적 전개, 전남문학 변천사, 영남의 수필문학사 등이 그것이다.

(라)는 거시적+공시적 연구로서 지방문학의 거대 담론을 구명하는 연구 영역이다. 이때 거대 담론이란 지방문학의 본질이나 근본적 성격, 지방문학과 인접 학문간의 학제적 교호 관계 등을 포괄하는 총론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방문학의 개념과 본질, 지방문학의 총체적 인식, 지방문학의 문화론적 해석, 영·호남 지방문학의 비교론적 과제, 지방문학의 민족문학적 성격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지방문학의 연구 영역을 범박하게나마 정리해 보았지만 미흡한 지방문학 연구를 활성화하고 그 성과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학문 연구 영역에서 지방문학의 위상을 재검토하는 일이며, 다음으로 학문 외적인 측면에서 지방문학 연구의 가능성과 방향을 살피는 일이다.

지방문학의 위상과 정체성은 상위 범주인 지방문화의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예컨대 호남문화의 본질은 무엇이며, 영남문화나 강원문화와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는가, 역사적으로 호남문화는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민족문화나 중앙문화와 어떻게 변별되는가 등의 문제가 그것이다.

각 지방 단위로 지방문화의 특질과 성격에 관해 정치, 경제, 풍속, 설화,

종교 등의 층위에서 오랫동안 연구하여 왔지만 아직까지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문화의 본래적 속성이라 할 수 있는 역동적 시공성 때문이다. 문화는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쇠퇴하고, 상승한다. 또한 문화 교섭을 통하여 계속 변형되고 재생산된다. 문화의 전통적 특질 또한 역사적 과정 속에서 새롭게 수용된다. 따라서 각 지방의 문화적 특질을 규정하되 문화의 생동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지방문학의 정체성 또한 ‘생성하는 과정으로서’ 문화를 고려하는 가운데 정립되어야 한다.

지방문학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특히 지역적 혹은 학문적 폐쇄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예컨대 호남문학의 연구는 영남문학이나 충청문학과 떨어져서 그 의미를 찾기 어렵고, 무등산권 문학은 영산강권역 문학이나 지리산권역 문학과 분리해서 그 특질을 구명하기 쉽지 않다. 지역간 공시적 비교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전공영역별 연구를 통합적으로 병행해야 한다. 역사, 철학, 종교, 민속, 언어, 지리 등의 영역이 호남문학 또는 영남문학의 범주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예컨대 호남문학의 기원을 따지기 위해서는 역사학과 사회학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단위별로 ‘연구센터’²²⁾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산·학·연·예술 분야의 통합적 네트워크를 통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면서 총횡으로 체계화해야 한다. 학자뿐만 아니라 문학인들의 횡적 연대도 필요하다. 문학인들의 욕성이야말로 지방문학의 정수를 체득할 수 있는 살아있는 목소리일 뿐만 아니라, 학문이 찾아내지 못하는 정체성의 원리를 현장 속에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문 외적인 측면에서 지방문학 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우선 권역별 지방문학의 기초 문헌이 가급적 빠짐없이 수집, 정리되어야 한다. 어느 학문 분야라 할지라도 기초 문헌은 연구의 실증성을 보장하는 기초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국 고전문학의 경우 오래 전부터 고전문학 전공자들과 각 지역의 대학도서관에서 고문헌 정리의 차원에서 작품집을

22) 전남지역의 경우 전남대에서 <호남학연구단>을 운영하고 있다.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미흡하다. 개인이 소장한 문집 자료를 조사하고 정리하기 위한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 필자는 전남대학교 <호남한문학 연구실>의 <20세기 근·현대 호남한문학 자료 수집 및 연구>²³⁾ 과정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전국 각 지역의 행정기관에 소속된 향토 사료자문위원²⁴⁾이 해당 지역의 문헌 자료에 관하여 상당한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들로부터 상당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지금까지 개인 단위로 이루어져 왔던 고문헌 조사가 이러한 방식으로 조직화된다면 상당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른 한편으로 근대 후 100년 이상이 지난 현대문학의 경우 더 늦어지기 전에 기초 문헌을 정리하지 않으면 역시 고전문학과 마찬가지로 곤란을 겪게 된다. 특히 현대문학의 경우 발표매체가 다양하고 작가 수도 방대하므로 더욱 많은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주요 작품집과 잡지, 일기나 서간, 자서전, 수필과 같은 작가의 자전적 기록, 문단 활동의 성과 등을 전부 망라해야 할 것이다. 문학박물관과 같은 사료 도서관을 구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학계와 자치단체 등의 협조도 긴밀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 다음으로 지역학 진흥의 차원에서 지방문학 연구자를 확보하고, 연구자간 교류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개인과 개인, 단체와 단체간의 공동 연구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인적, 물적 낭비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승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지방문학을 연구하는 일은 오랜 시일을 요하고 연구의 물적 토대가 쌓여야 비로소 성과를 보는 방대한 작업이므로 서두르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연구자를 육성하여야 한다. 특히 각 권역별 주요 중심대학의 국어국문학과나 관련 단체들의 연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하여야 한다. 간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

23) 참고로 2004년에 발표하였던 <호남한문학 자료의 현황과 연구 과제>를 첨부한다.

24) 이들은 각 지역의 문헌이나 유적에 대하여 오랫동안 자문하여 왔다. 해당 지역의 역사, 문화, 전통, 유산 등을 잘 알고 있으며, 지역 인사의 학적 계보에 대해서도 능통하다. 전남대 <20세기 근·현대 호남한문학 자료 수집 및 조사>팀이 광양 지역의 시사(詩社)를 정리할 수 있었던 것도 이들의 도움 덕분이었다.

문학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단기간의 연구 성과를 요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수동적으로 연구에 임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능동적으로 선도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더라도 일회적인 사업에 그치지 않고 후속 연구 과제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의 단위를 조정하는 수완이 요구된다. 물론 첫 번째 과제와 관련하여 대학과 대학, 단체와 단체, 전문가와 동호인, 행정기관이나 기업, 지역민과 지역민 사이에 지방문학의 자산을 공유함으로써 지방문학 연구풍토를 제도화하는 일은 시급하다.

세 번째로 지방문학이 갖는 보편적 인문정신을 지방 문화공동체의 좌표로 삼아야 한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문학에 대한 발상과 인식을 전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문학의 보편적, 항구적 속성을 중시함으로써 지방문학의 특수성과 경향성을 폄하하는 일이 적지 않다. 지방의 특수한 역사성과 전통이 문학 일반의 원리와 상치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근대의 생성 이후 고착화된 분절적 사고에서 비롯된 잘못이다. 전술하였듯이 정치적 공동체로서의 국가가 조장한 ‘상상의 공동체’와 ‘위계적 서열화’로 말미암아 민족문학과 지방문학, 중앙문학과 지방문학이 별개의 문화체인 것처럼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문화 범주로서의 문학이란 특수성을 매개함으로써 보편성을 지향한다. 마찬가지로 지방문학은 역사적, 지역적 특수성에서 배태되었지만 이 역시 인문정신으로서의 문화적 보편성을 총체적으로 형상화한다. 호남문화, 영남문화, 제주문화²⁵⁾와 같은 지방문화는 각 지방민의 문화지족성을 충족하고 문화독자성을 강조하기 위한 편의적 분류일 뿐 보편적 인문정신을 지향하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25) 지방자치체가 시행된 후로 각 지역이 앞 다투어 지방 고유의 문화공동체를 가꾸어 나가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이 역시 보편적 인문정신을 훼손하거나 지방간 문화적 우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대현, 「지역문학 연구에 대한 몇 가지 문제」, 동방한문학 제21집, 동방한문학회, 2001.
- 김영화, 「현대문학과 제주문학」, <탐라문화> 제15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편, 1995.
- 김정호, <호남문화 입문>, 김향문화총서 1, 김향문화재단, 1990.
- 미셸 푸코, 이광래 옮김, <말과 사물>, 민음사, 1986.
- 박만규·나경수 편, <호남전통문화론>, 전남대학교 출판부, 1999.
- 박태일, <한국 지역문학의 논리>, 청동거울, 2004.
- 실천문학 특집, 「지방자치 시대, 지역문학을 다시 본다」, <실천문학> 1995년 겨울호.
- 양영길, 「지역문학사 서술 방법론-제주문학사를 중심으로」, <영주어문 3>, 영주어문학회, 2001.
- 이해준·손형부 외, <전남지방사서설>, 김향문화총서 2, 김향문화재단, 1989.
- 임형택, 「한민족의 문자생활과 20세기 국한문체」, <한국문학사의 논리와 체계>, 창작과 비평사, 2002.
- 조동일, <지방문학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 하루오 시라네·스즈키 토미 엮음, <창조된 고전>, 소명출판사, 2002.

<투고일 : 2006. 1. 12. 심사일 : 2006. 2. 3. 심사완료일 2006. 2. 15.>



<Abstract>

The Conceptual Category and Research Direction of Regional Literature

Park, Joong-yeol

This study intends to look for the clues of discussing in regional literature by arrange some kinds of conceptional category. For this purpose I discussed the term, writer and problem of text's ascertainment.

The term of regional literature is more valuable than provincial literature in reflecting identification of cultural subject and spiritual character of living community. Then the angle in spiritual totality of regional community will focuss in opposition to cultural prejudice of central elitism.

The writer of regional literature is (1) to engage in writing a creative work from birth (2) to figurate regional feature living in outlying region after adult age (3) to create a work based on regional mode of living after settle down.

To confirm text we must devide language, emotion, story and subject matter, but consider research methods to integrate distinct one.

The research domain of regional literature can be classified four points of view. First area is micro&diachronic research as it is called 'microstoria'. Second area is micro&synchronic research. That is axiological, aesthetic research. Third area is micro&synchronic research. That purpose historical organization research. Forth area is micro&diachronic research. It researches macro discourse of regional literature.

The research direction of regional literature is activated when goes side by side inner and outer studying. First in inner study it should be

prescribe cultural feature in each region, and consider cultural vividness. Moreover identity of regional literature must be settled in according with culture as process coming into being. And take precautions against uncommunicative doctrine in region and study.

For supporting research of regional literature in outer study, first it needs to gather basic documents each region. Seconds it needs to secure investigator, to back up interchange between investigator. Third, we should make coordinates universal humanism in regional literature for regional culture-community.

Keywords : regional literature, conceptual category of regional literature, research domain of regional literature, culture-community

K C I